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노인 돌봄과 신탁의 역할 확대   |
| 이슈분석    | 중소형 자동차보험사의 위기   |
| 금융경영브리프 | 인공지능에도 책임감이 필요하다, AI 거버넌스<br>애플-골드만삭스, Apple Card 파트너십 조기 종료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비둘기파로 돌아선 파월 연준 의장<br>외 환 : 정책과 기대의 불협화음 속 1,300원 재진입<br>부 동 산 : 관망세 확산, 매수세 위축에 조정압력 부각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 다음 호는 2024년 신년호로 차주 1월 2일에 발간 예정입니다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김종현(jh.kim\_)

#### 논단

연구위원 정승희(smiley77)

#### 이슈분석

연구위원 이기홍(kihong.lee)

####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정윤영(yunyeong.j)  
연구원 윤석진(siyun826)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김용태(ket1006)  
외 환 | 연구위원 진옥희(okheejin)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노인 돌봄과 신탁의 역할 확대
- 04 **이슈분석** 중소형 자동차보험사의 위기
- 08 **금융경영브리프** 인공지능에도 책임감이 필요하다, AI 거버넌스 애플-골드만삭스, Apple Card 파트너십 조기 종료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비둘기파로 돌아선 파월 연준 의장  
외 환 : 정책과 기대의 불협화음 속 1,300원 재진입  
부 동 산 : 관망세 확산, 매수세 위축에 조정압력 부각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다음 호는 2024년 신년호로 차주 1월 2일에 발간 예정입니다



## 노인 돌봄과 신탁의 역할 확대\*

정 승 희 연구위원

예상보다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은 특히 노인 돌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제도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자 본인의 노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치매신탁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이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최소한 본인의 노후 돌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경제적 안전장치이다. 아직까지 가입이 매우 저조한 국내 치매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재산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고령 친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 :: 예상보다 강하고 빠른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 돌봄 문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비단 하루 이틀 지속된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출산율이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올해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로 당장 오는 2025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가 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가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지만 특히 노인 돌봄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부터 본격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데 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후기 고령자는 35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들 후기 고령자 수는 오는 2030년에는 5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노인 돌봄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 해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요양 급여를 수령하였다.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노인 돌봄이 필요한 인구 급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수급자 수가 증가할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어 머지않아 국민건강보험 처럼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기요양 보험료를 부담할 젊은 층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이나 서비스는 특정한 기준<sup>11)</sup>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 돌봄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 마련이 필요하다.

## ∴ 치매신탁은 가장 효과적인 노후 대비 상품

신탁은 치매노인의  
재산·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한 본인의 노후  
돌봄 비용은 보전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장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 제도를 통한 노인 돌봄이 가지는 여러 한계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각자 본인의 노후 생활, 특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가 80세 이상이 되면 사람마다 시점이나 정도는 다르겠지만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적으로도 현재 우리나라의 80세 이상 노인 중 3명, 85세 이상 노인 중 4명이 치매를 겪고 있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매가 걸릴 확률은 매우 높다.

신탁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이 의료비·간병인 비용 등의 돌봄 비용을 위해 본인이 젊을 시절 축적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과거 노인 돌봄은 자녀에 의존한 가족 부양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노인 단독가구나 노인들 로만 구성된 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족 구조 하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신고한 노인의 가구 형태를 조사한 결과 1위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는데, 간병인 등 제3자를 통한 재산·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제3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치매 노인의 재산권 침해는 사회적 이슈이다.

신탁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한 본인의 노후 돌봄 비용은 보전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안전장치이다. 특히 치매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치매신탁은 인지 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발생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의 지급처리를 맡아주는 상품이다. 고령화를 대비하는 금융 상품은 연금, 보험을 비롯해 자산관리형 상품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치매신탁이


<sup>11)</sup>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급여액을 지급

노인 돌봄에 있어 특히 효과적인 점은 이러한 후견 기능을 제공하여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정신적 제약이 따를 때 금융 착취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 ❖ 치매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안타깝게도 국내 신탁시장은 아직까지 일본, 미국 등 주요국 대비 발전이 더딘 편이다. 이들 국가에서 신탁은 고령화 니즈에 맞춰 자산을 관리하고 유동화 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신탁 시장은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특정금전신탁 위주로 발전하면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종합재산관리 부분이 거의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국내 시장에 도입된 치매신탁의 경우에도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일부에 불과하며 상품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노인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본인의 재산을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치매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신탁 자산을 원금보장이 가능한 형태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투자 목적이 아닌 본인의 노후 요양을 위해 수탁하는 자산인 경우 원금 보장의 니즈가 클 수밖에 없는데 3억 미만인 신탁 자산에 대해서는 자행 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가입 시 수반되는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담으로 상품 가입 자체를 회피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비교적 소액이 위탁될 가능성이 높은 치매신탁에 한해서는 3억 미만의 자산에 대해서도 자행 예금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신탁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매신탁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신탁 상품은 일부 부유층의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평범한 사람들이 본인의 노후 돌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치매신탁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금지 규제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치매를 대비해야 하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신탁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고령층 친화 서비스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치매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재산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홍보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 중소형 자동차보험사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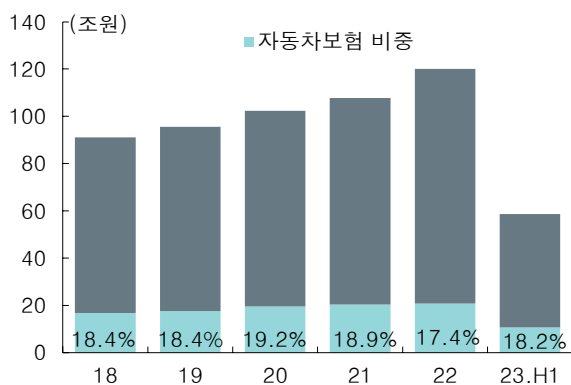
이 기 흥 연구위원

오랜 적자 늪에 빠졌던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해율과 사업비율 개선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는 여전히 손해율을 개선하지 못하고 적자 늪에 빠져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내년 도입 예정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중소형 보험사에게 고객 확대를 위한 기회이지만 보험사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우려된다. 중소형 보험사의 흑자전환을 위해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 ■ 국내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중심으로 성장 중이나 자동차보험은 성장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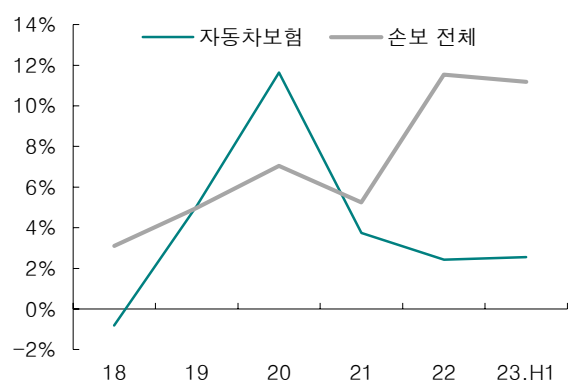
- 국내 손해보험 시장은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으로 CSM 확보가 용이한 장기보험 중심으로 성장
  - '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2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그 중 장기보험 비중이 가장 크고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
  - '22년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손해보험 상품 비중은 장기보험(51.4%), 퇴직연금 등(20.6%), 자동차보험(17.4%), 일반보험(10.6%) 순으로 차지
- 2020년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은 성장이 둔화 중이며, 내년에는 주요 시장의 경기 둔화가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보험 시장은 더욱 둔화될 전망
  - 자동차보험 성장률(YoY): '20년 11.6% → '22년 2.4% → '23.1H 2.5%
  - '23.11월 한국자동차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올해보다 3.6%p 감소한 1.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국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및 자동차보험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률(YoY)



자료 : 금융감독원, 원수보험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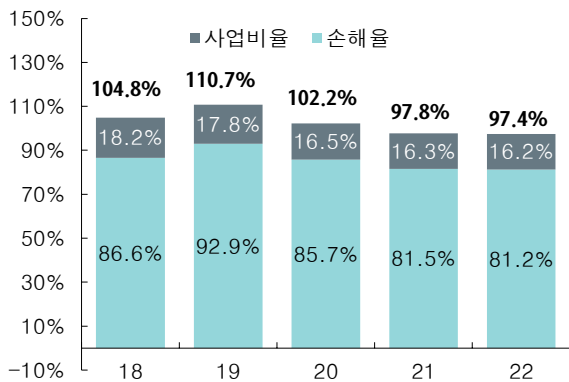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은 2021년 이후 손해율과 사업비율 개선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자동차 이동량 감소와 운전 보조 기술 향상 등이 교통사고 감소를 가져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에 기여
  - 자동차 1만대 당 사고건수: '19년 84건 → '20년 74건 → '22년 67건
- 또한, 대면 채널 비중 감소와 CM(사이버마케팅) 채널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율 감소가 자동차보험 실적 개선에 일조
  - 자동차보험 CM 채널 비중: '19년 21.2% → '20년 25.3% → '22년 31.6%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도 교통사고 감소 추세 지속과 CM 채널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자동차보험 흑자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기대
  -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19년 -1.6조원 → '20년 -0.38조원 → '22년 0.48조원

■ 대형사는 흑자로 전환한 반면 중소형사는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며 생존 위기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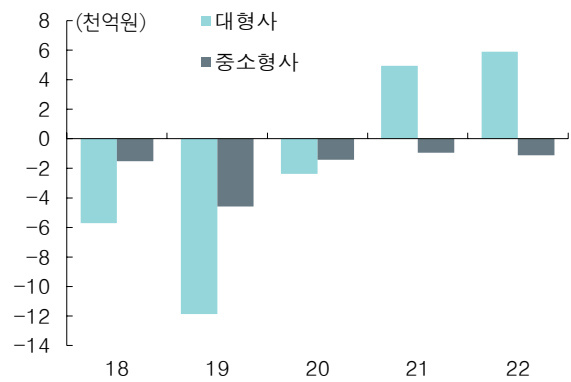
- 대형사는 자동차보험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지만 중소형사는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며 생존 위기에 직면
  - '21년 대형사는 약 5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현재까지 흑자로 전환된 반면, 중소형사는 약 천억원 가량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적자를 지속
- 보험사간 자동차보험 영업손익 차이는 손해율에 크게 기인하며 중소형사는 대형사와 손해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적자를 지속
  - '22년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중소형사 86.3%, 대형사 80.5%
- 또한, 중소형 보험사는 대형사보다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비율이 높은 것도 영업손익 개선에 어려운 환경(22년 기준 사업비율: 중소형사 18.7%, 대형사 15.9%)

■ 자동차보험 합산비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영업 손익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대형사(삼성, 현대, KB, DB), 중소형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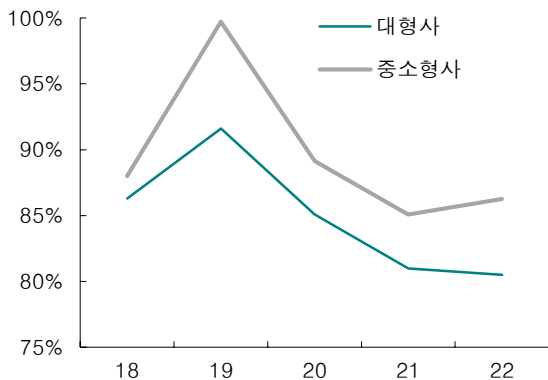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은 CM채널을 중심으로 과점인 대형사가 지속적으로 시장점유를 확대

- 자동차보험은 저연령층이 선호하는 CM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연령층이 선호하는 대면은 감소 중이나 여전히 대면은 채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대면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 '18년 62.4% → '20년 56.7% → '22년 51.9%
  - CM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 '18년 18.3% → '20년 25.3% → '22년 31.6%
- 자동차보험 시장 과점을 형성한 대형 4개사는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중소형 8개사는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대형사 원수보험료 MS 비중: '18년 80.5% → '20년 84.7% → '22년 84.9%
- 대면 채널 비중이 큰 대형사의 CM 채널 중심 영업 전략은 저렴한 비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면 설계사의 영업력을 저해하는 단점도 상존

■ 낮은 손해율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대형사의 선순환 구조와 높은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악순환 구조가 보험사간 양극화를 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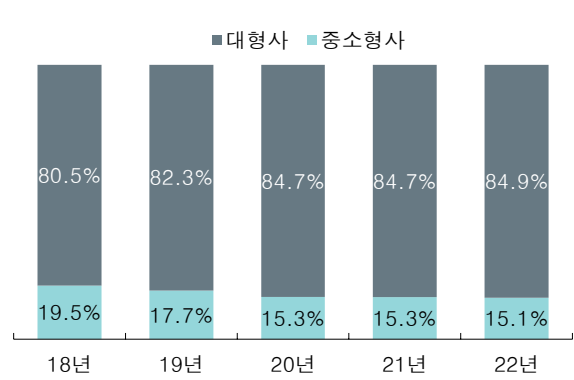
- 대형사는 낮은 손해율이 보험이익 증가로 연결되어 금융 당국의 정책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여 상품 경쟁력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반면, 높은 손해율을 나타내는 중소형사는 적자 개선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동결하여 상품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
- 대형사의 선순환 구조와 중소형사의 악순환 구조로 인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간 손해율 격차를 줄일 필요
  - 대형사는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작년 동기 대비 0.6%p 증가한 77.2%에 그쳐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3.6%p 증가한 84%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

■ 자동차보험사간 손해율 추이 비교



자료 : 금융감독원

■ 보험사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비교




자료 : 금융감독원

■ 내년 도입 예정인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는 중소형사에겐 기회이자 위기

- 보험 소비자 편익 제고와 보험업권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예정
  - '23년 7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11개 플랫폼사에 지정, 업계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 권유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는 수수료 절감과 MAU가 높은 플랫폼채널과 협업을 통해 영업력 제고가 기대
- 다만, 비교·추천하는 플랫폼 서비스 도입은 중소형 보험사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여 손해율 악화를 가중할 우려
  - 보험사마다 플랫폼과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상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대형사는 자사 홈페이지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고 브랜드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사는 플랫폼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

■ 중소형 보험사의 독자 전환을 위해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발판 마련이 필요

- 중소형사는 언더라이팅, 상품 개발력 강화 등 업무 능력 향상으로 내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손해율과 사업비율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중소형사는 보험요율 산출시 대형사보다 부족한 데이터로 디테일한 요율 산출이 불가하여 보험사간 통합된 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요율 산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금융당국은 보험사간 채널 등 세분화된 손해율 비교 등을 통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소비자와 중소형사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 방안

구분	범위	상세
업무범위	권유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
상품유형	온라인 상품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특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측면을 고려하여 온라인(CM) 상품만 허용
상품범위	단기, 자동차, 실손, 저축성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허용
영위요건	전산인력, 알고리즘인력 보유	기존 보험대리점 인적요건이 아닌 플랫폼 업무특성에 맞게 고려 (보험대리점: 10% 이상 설계사 보유)

자료 : 금융위원회

■ 플랫폼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방안

규제	상세
알고리즘 검증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인 알고리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검증 강화
영업 보증금	소비자 피해 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 부여
정보보호 강화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를 제한
수수료 제한	<b>자동차보험: 보험료 대비 4%대 이내</b> 단기: 대면비 33%, 장기: 대면비 15~20%
영업행위 규제 적용	보험업법 등 개별업법상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준수
소비자 안내 강화	<b>플랫폼을 통한 가입과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b> 을 안내

자료 : 금융위원회

## 인공지능에도 책임감이 필요하다, AI 거버넌스

정윤영 수석연구원

AI 알고리즘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많은 변화를 이끌었지만 정보유출, 차별적 알고리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책임감 있는 AI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관련 규제 및 정책 도입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수립 움직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국내 금융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의 AI 거버넌스 수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 AI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AI 기술 관련 문제도 동시에 증가<sup>1)</sup>

-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도입의 가속화로 관련 시장 규모 및 서비스 제공 영역도 급속도로 확대되는 중
  - 금융회사는 신용평가, 챗봇을 통한 고객 서비스 지원,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자산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며 이에 맞추어 사업모델도 변화
  -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1년 \$956억에서 '23년 \$2,079억으로 117% 가량 성장하였으며, '30년까지 \$1조1,849억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 AI 기술은 금융상품, 사업모델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많은 변화를 이끌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 가능
  -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잠재적 편견, 모델 자체의 위험성 등 AI 알고리즘으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AI 시스템으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과 영향으로 인해 '책임감 있는 AI' 적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AI 관련 규제 및 정책 도입이 가시화

- 주로 AI 리스크를 서비스별로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별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AI 서비스가 사회적 리스크를 증대시킬 경우 그 이용을 제한
  - (미국) AI 모델이 국가 및 경제 안보, 공중보건, 안전 등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연방정부에 통지하고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하는 AI 안전보장과 신뢰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23.10)
  - (한국) 금융권의 AI활용을 지원하고 활용환경 구축을 위해 'AI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 가이드라인 및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금융위, '23.04)

[1] "The Impact of AI in Financial Services: opportunities, risks and policy considerations", UKFinance, 2023.11

■ 금융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

- 금융권의 AI 성숙도 평가에는 기술적 요인 뿐 아니라 AI 관련 활동·기여, 리스크 통제 노력과 같은 투명성 부문도 고려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
- (JPMC) AI 플랫폼 구축뿐 아니라 ML/AI 기술 거버넌스 전담 기능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여 모델이 올바른 방식으로 개발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 AI 모델이 규제 및 윤리 표준은 물론 조직 내부 정책 및 절차의 사용 사례 목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
- (RBC) 책임감 있는 AI 시스템 구축을 위해 “Respect AI Framework” 출시하여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모델 검증 방식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수립
- (Citi) 모델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테스트 및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편향된 결과를 감지하고, AI 모델에 관해서는 리스크 관리 직통 보고 라인을 구축
  - 모델 설계의 모든 단계를 철저한 문서화를 통해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모델 스크리닝 조직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AI 모델을 면밀히 검토

■ AI 도입에 대한 투자와 개발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는 AI 서비스 대한 고찰도 필요

-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대에 국내에도 관련 정책 및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도 AI 기술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책임감 있는 AI 기술 및 의사결정체계 수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도 AI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AI 윤리원칙 제정, 내부 정책 수립, 프로세스 관리 체계 수립 등의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

■ 국가별 AI 규제 현황

국가	규제현황
미국	안심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최초의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23.10) - AI 관련 최초의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영국	인공지능(AI) 백서 공개('23.03) - 안전, 보안 및 견고성,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공정성, 책임 및 거버넌스, 경쟁 가능성 및 보상 등 5가지 원칙을 소개
EU	EU AI Act('21.4 최초발의, '23.11 발효예정) - EU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 가능하고, 차별이 없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함
한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23.02)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 가이드라인 및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23.04)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글로벌 금융권 AI 성숙도 평가 부문 및 순위

평가기준	평가항목				
	역량	혁신	리더십	투명성	
역량	AI 부서의 직원 역량				
혁신	은행의 보유 논문·특허·세미나 등				
리더십	경영진의 AI 인식 및 수준 등				
투명성	책임감 있는 AI 활동 관련 기여, 통제 등				
회사명	순위	역량	혁신	리더십	투명성
JPMorganChase	1	2	1	2	1
Capital One	2	1	2	8	5
RBC	3	7	3	5	2
Wells Fargo	4	4	5	32	10
UBS	5	3	19	17	22
CommonBank	6	16	20	3	4
Goldman Sachs	7	8	4	15	49
ING	8	6	10	19	15
Citigroup	9	5	8	26	31
DBS	10	22	34	1	12

자료 : Evident(2023) 글로벌 금융회사 50개 대상

## 애플-골드만삭스, Apple Card 파트너십 조기 종료

윤석진 연구원

2029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애플과 골드만삭스의 애플카드 파트너십은 양측의 해지 의사 표명으로 조기 종료되었으며, 애플은 금융 부문 확장을 위한 차기 파트너를 모색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애플카드 파트너십 이후 대규모 손실이 누적되면서 리테일 부문 전반을 축소함에 따라 무리한 외형 성장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다. 대내외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 또한 외형 성장에 주력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애플과 골드만삭스의 Apple Card 사업 관련 파트너십 중단 본격화<sup>[1]</sup>

- 애플은 '14년 결제 서비스인 Apple Pay를 선보인데 이어 '19년 골드만삭스와 제휴('19~'29년)를 맺고 Apple Card를 출시해 금융 부문으로의 확장 시도를 지속
- 그러나 '23.7월 골드만삭스는 애플과의 협업 이후 1,400만 명의 고객 기반과 \$160억의 신규 여신을 확보했음에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제휴 종료 의사를 표명
  - 이외에도 골드만삭스의 소매금융 플랫폼 Marcus의 신규대출 중단 및 대출채권 매각, '21년 인수한 GreenSky(핀테크 대출) 매각 등을 통해 리테일 부문 전반 축소
- 이에 대해 애플이 12~15개월 내 신용카드·예금상품 계약 부문 해지안을 제시함에 따라 2029년까지 예정되었던 양사 간의 금융 사업 파트너십은 조기 종료 예정

### ■ 애플은 금융 서비스 부문 확장을 이어가기 위해 골드만삭스를 대체할 차기 파트너 모색


- 애플은 아이폰 판매 실적 둔화로 금융 및 서비스 부문(Apple Card, Apple Pay 등)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빠른 시일 내 GS를 대체할 제휴사 선정할 전망
- 미국 내 애플카드 사용자 수는 670만 명이며, 60% 이상이 주거래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 내 입지 강화 측면에서는 애플이 매력적인 사업 파트너
- 골드만삭스를 대체할 제휴사로는 Apple Pay의 초기 파트너십 기업이자 애플 생태계 내에서 최대 신용카드 제휴사인 Chase가 유력 후보로 대두
  - 그 외 싱크로니(Synchrony), 아멕스(Amex) 등도 가능성 높은 후보로 거론

[1] "Apple seeks to end its credit card and savings account partnership with Goldman Sachs", CNBC, 2023.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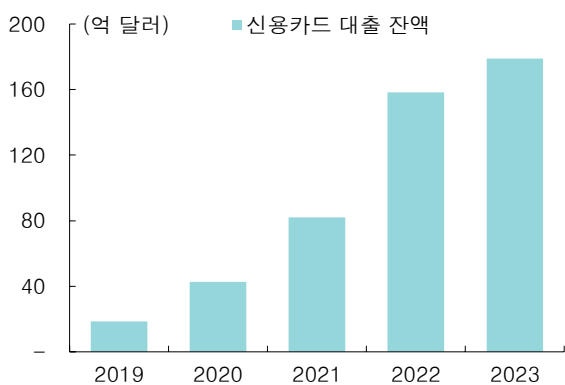
■ 애플 파트너십 조기 종료는 골드만삭스에게 무리한 외형 성장 전략의 대표적 실패 사례

- 애플과의 사업 파트너십 이후 골드만삭스는 카드론 부문에서 높은 손실률을 기록하며 '20년 이후 3년간 총 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
- GS의 손실 발생 원인은 저신용 차주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화와 더불어 애플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수료 부과 정책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
  - 골드만삭스는 애플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연회비, 연체·해외결제 수수료 등도 미수취
- 골드만삭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35% 하락했으며, 실적 부진이 성과급 축소로 이어지며 IB부문 인력 유출이 지속되는 등 피해가 확산
  - 골드만삭스 순이익(백만달러) : 6,866('22.1H) → 4,450('23.1H)
- 아울러 美 연준이 골드만삭스가 적절한 고객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평판 악화와 벌금, 배상금 리스크 또한 확대

■ 국내 금융사들 또한 외형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에 집중하는 노력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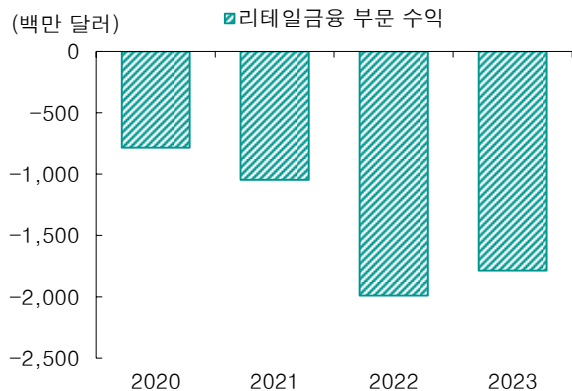
- GS 사례와 더불어 외형 성장에 치중한 전략으로 인해 재무건전성 악화·수익성 부진이 심화되며 연쇄 파산을 일으켰던 일본 보험업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
  -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보험업계는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속에서도 무리한 외형 성장 경쟁이 이어지면서 '97년부터 닛산생명을 비롯한 8개의 보험사가 연쇄 파산
- 국내 금융사 또한 신규 사업 추진 및 파트너십 과정에서 수익성 관리 및 실패 시의 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실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요구
  -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등 대내외의 비우호적인 경제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 韓 금융산업 내의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 애플과 파트너십 이후 골드만삭스의 카드부문 외형 성장



주 : 2023년은 3분기 기준  
자료 : Goldman Sachs

■ 골드만삭스의 리테일금융 부문 손실 추이



주 : 세전 수익(Pre-tax profit) 기준, 2023년은 1~3분기 누적  
자료 : Goldman Sachs

## 금리: 비둘기로 돌아선 파월 연준 의장

김 용 태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비둘기파적 FOMC·인플레이션 경계감 완화 속 연준 정책 전환 기대로 급락했다. 국내 금리는 기초적 물가 둔화 흐름 속 대외금리 하락세 동조화로 하락했다. 12월 FOMC는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점도표와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피벗 가능성을 시사한 점,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연준 내부 논의가 시작됐다는 언급 등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됐다. 美 정책기조 전환에도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졌음을 감안할 때,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 하락은 제한될 전망이다.

### ■ 글로벌 금리는 비둘기파적 FOMC·인플레이션 경계감 완화에 정책 피벗 기대로 급락

- 12월 FOMC는 점도표 하향, 성명문 수정,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발언 등이 부각되며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의 근거로 물가 둔화에 의한 실질금리 상승을 언급한 가운데 CPI·PPI물가 또한 둔화흐름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완화
  - 美 CPI/PPI(% , YoY) : 9월 3.7/2.2 → 10월 3.2/1.3 → 11월 3.1/0.9
- 美 금리는 FOMC 이후 소매판매와 S&P서비스업PMI 예상치 상회 등 경제지표 호조에도 연준 피벗에 의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강하게 반영하며 하락폭 확대
  - 美 소매판매(% , MoM) : 9월 0.7 → 10월 -0.1 → 11월 0.3 (예상 -0.1)
  - 미 국채 2/10년물 금리(%) : 12.8일 4.72/4.23 → 15일 4.43/3.91 → 21일 4.34/3.89

### ■ 국내 금리는 기초적 물가 둔화 흐름과 美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하락세 지속


- 금통위 의사록 내 근원물가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으나, 공급 측 상승압력 해소로 11월 소비자물가가 반락한데다 생산자물가도 둔화되며 기초적 둔화 흐름 지속
  - 한국 생산자물가(% , YoY) : 9월 1.3 → 10월 0.8 → 11월 0.6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수요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비용압력도 완화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 YoY) : 23.2H 3.3 → 24.1H 3.0 → 24.2H 2.3 → 25년 2.1
- 국고채 금리는 기초적 둔화 흐름 속 물가 경계감 완화와 美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따른 대외금리 하락세에 연동되며 하락세 지속
  - 국고 3/10년 금리(%) : 12.8일 3.46/3.53 → 15일 3.28/3.36 → 22일 오전 3.25/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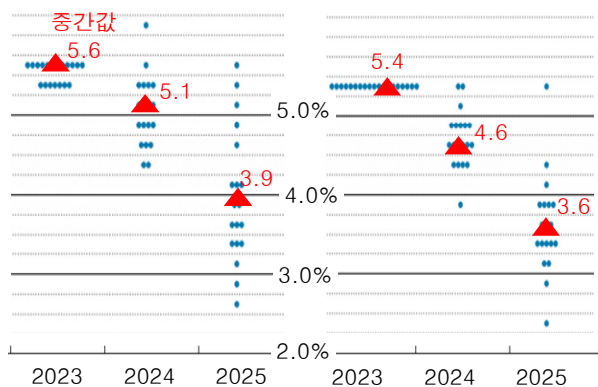
■ FOMC, 정책금리 동결한 가운데 점도표 하향과 경기평가 전환으로 피벗 가능성 시사

- 12월 FOMC에서 연준은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점도표와 수정경제전망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암시(목표상단 5.50% 유지, 만장일치 결정)
  - 점도표 상 '24년말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은 이전 대비 50bp 하향된 4.6%(3회 인하)로 발표됐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의 부재로 사실상 인상 종료를 피력
- FOMC성명문에서 “美 경기가 강한 속도로부터 둔화(slowed)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eased)되고 있다” 고 문구를 수정해 연준의 경기 판단 하향을 시사
  - 또한, 추가 긴축 앞에 “어떤(any)” 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에 대해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가 최종금리에 도달하거나 근접했다는 위원회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언급
- 경제전망에서는 '24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의 소폭 하향조정(1.5%→1.4%)과 실업률 전망 유지(4.1%)에도 물가 전망을 하향하며 종합적인 美 경기 연착륙 전망을 강화
  - '24년 헤드라인PCE/근원PCE 전망(% , YoY) : 9월 FOMC 25./2.6 → 12월 2.4/2.4
-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승리 선언에 관해 경계하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내부 논의가 시작됐다고 발언하며 비둘기파적 태도를 부각

■ 美 정책기조 전환에도 연준을 앞서간 시장기대로 국내외 금리의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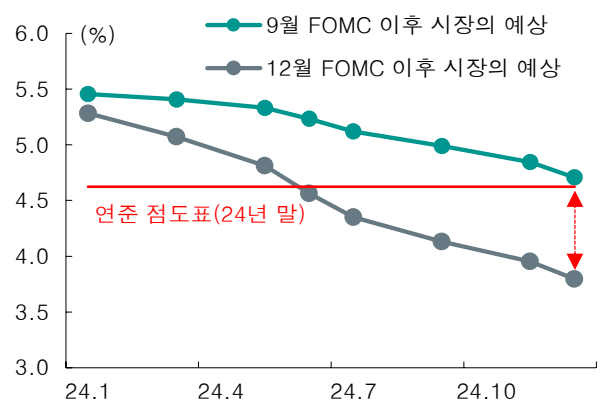
- 연준의 물가와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 개선, 점도표 내 추가 인상 의견 부재, 금리 인하 시점 논의 시작 등을 감안할 때 긴축적 통화정책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
- 단, 연준 점도표(3회)와 채권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6회) 간의 괴리가 높아진 점, 단기간에 금리가 급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유의
- 국내 시장금리는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 제한(가계부채 증가, 韓·美 기준금리차)으로 기준금리(3.50%) 이하인 현재 수준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20~3.40%, 3.25~3.45% 범위로 전망 

■ 연준 23.9월(좌) 및 23.12월 점도표(우) 비교



자료 : FRB

■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시각차



자료 : Bloomberg

## 외환: 정책과 기대의 불협화음 속 1,300원 재진입

진 옥 희 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예상보다 완화된 12월 FOMC 결과와 엔화 강세가 맞물리며 1,300원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美 경제지표 호조 속에 연준 인사들의 경계성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후퇴하자 1,300원 대에 재진입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잔존한 美 금리 인하 기대와 유로존 경기부진에 따른 유로화 약세 전환 가능성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결제 수요와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을 반영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 ■ [원/달러 환율] 완화적 FOMC 등으로 하락했으나 정책전환 기대 후퇴 속 1,300원대 복귀

- 당초 원/달러 환율은 예상보다 완화된 FOMC 결과와 엔화 강세,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급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낙폭을 확대, 한때 1,295원까지 하락
  - 반도체 수출(12.1~20일, 19%) 증가 속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12.11~21일, 1.9조)도 이어짐
- 그러나 이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되돌려짐에 따른 엔화 약세와 예상보다 양호한 美 경제지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복귀

### ■ [국제 환율] 달러화는 금리 인하를 시사한 FOMC와 강경한 ECB 결과가 대조되며 약세

- 달러화는 '24년 3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12월 FOMC 결과를 소화하며 급락했으나, 美 주택경기 개선과 연준 인사의 경계성 발언 이어지며 낙폭 제한
  - 모기지 금리 안정화에 힘입어 11월 신규주택착공 및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NAHB 주택시장 심리지수도 반등
  -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내년 시장의 과도한 인하 기대(6회)를 경계
- 유로화는 경기둔화 우려에도 금리 인하 논의를 배제한 12월 ECB의 매파적 동결과 PEPP 재투자 점진적 종료 발표 속에 조기 정책 전환 기대가 되돌려지며 강세
  - 유로존 제조업/서비스업 PMI: 11월 44.2/48.7 → 12월 44.2/48.1(예상 44.6/49.0)
  - 라가르드 ECB 총재는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반등 가능성 등을 경계
- 엔화는 美-日 금리 차 축소와 日 제조업체 체감경기 개선 등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12월 BOJ의 완화적 정책 유지 및 긴축 시그널 부재 속에 상승폭 축소
- 위안화는 달러화 약세와 中 정부의 베이징-상하이 주택 매입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으나,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하단이 제한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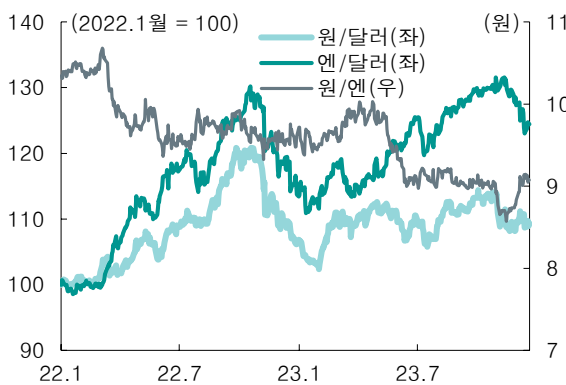
■ 900원대로 복귀한 원/엔 환율, 美·日 간 통화정책 기조 역전되며 상승흐름 이어갈 듯

- 원/엔 환율은 11월 연저점(100엔당 858원) 기록 후 오름세를 보이며 900원대 복귀
  - 11월 FOMC 이후 연준 금리인하 기대 속에 원화는 큰 폭 상승했으나, 엔화는 통화 완화 유지 기조와 日 3Q GDP 역성장 등으로 미미한 반등에 그치며 원/엔 환율 하락
  - 그러나 12월 초 BOJ 총재의 통화정책 출구전략 시사 발언 등으로 엔화가 급등세를 나타내자 원/엔 환율은 100엔 당 914원까지 상단을 높임(12.15일)
- 연준 피벗과 BOJ 정책 선회로 美·日 간 정책 기조가 역전되며 엔화 강세 예상
  - 연준의 긴축 종료와 대조적인 BOJ의 정책 정상화로 美·日 간 정책 격차는 역전될 소지
  - 12.20일 BOJ 금정위에서는 現 통화정책 유지를 결정했으나, BOJ의 경기판단(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과 임금·물가 간 선순환 확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4.4월 정책 전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 특히, 엔화는 미국과의 금리 차에 원화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美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면서 원/엔 환율 상승 전망
  - 미국과의 금리 차와 환율 간 상관관계('21.1월~'23.12.20일): 美·日 0.98, 美·韓 0.63

■ 원화는 美 금리인하 기대감과 결제수요가 맞물리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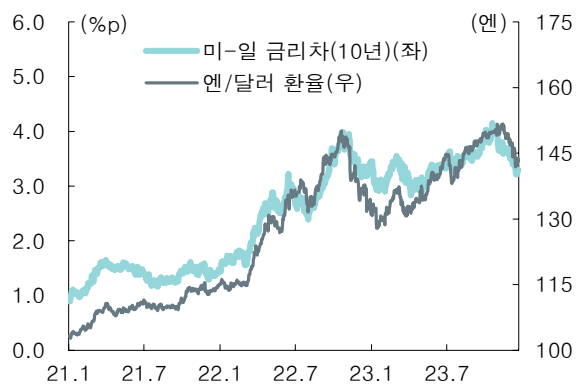
- 12월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경계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연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은 지속
- 다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하회 시 저가 매수를 위한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은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아울러 영국과 유로존의 부진한 경기와 물가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며 파운드와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낼 수 있는 점도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
  -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상황 속 환율은 향후 2주간 1,280~1,320원에서 움직일 전망

■ 원/달러, 엔/달러,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美·日 금리차와 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 부동산: 관망세 확산, 매수세 위축에 조정압력 부각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관망세 확산, 매수세 위축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가격 재하락 우려 확대, 계절적 비수기 도래로 매매 거래가 줄면서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도 확산되고 있다. 가격 상하방요인이 혼재되고 당분간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거래량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 대기수요, 매물 부담, 주담대 금리 등 가격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관망세 확산, 매수세 위축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 축소 지속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가격 하락지역이 늘며 관망세가 확산되고 매수세 위축이 지속되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25('23.9월) → 0.20(10월) → 0.04(11월)
- 단독 주택은 상승폭이 유지되었으나 아파트는 상승폭이 급격히 축소되고 연립주택은 하락세로 전환하며 주택 유형별로 가격 흐름에 편차
  - 유형별 상승률(% , MoM, 10월/11월) : 아파트 0.27/0.04, 연립 0.01/-0.09, 단독 0.12/0.13
- 전세가격 또한 상승폭 축소되었으나 매매시장 관망세로 대기수요가 증가하며 매매가격보다 높은 상승폭 유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0.32('23.9월) → 0.36(10월) → 0.27(11월)


### ■ 가격 재하락 우려, 계절적 비수기 도래로 매매가격이 조정되는 지역이 증가

- 매수세 위축,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려 주간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재하락 우려 확산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 WoW) : -0.01(12월 1주) → -0.04(2주) → -0.05(3주)
- 거래량 회복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미분양 등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확산
  - 인천, 경남은 전월 대비 하락 전환했으며 부산, 대구, 제주는 하락폭 확대
- 다만, 안전자산 선호 강화, 규제 완화로 수도권으로 수요쏠림이 나타나며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조정폭은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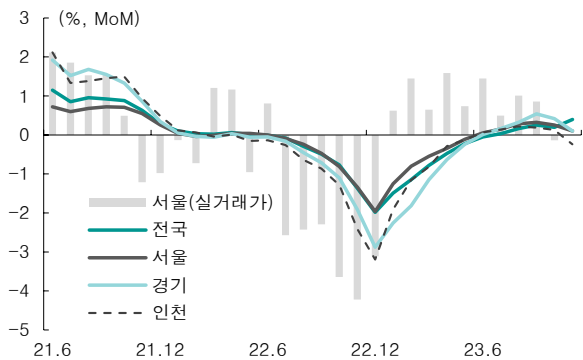
■ 시장 내 관망세 증대되면서 매매 거래량은 더욱 위축될 소지

- 정책모기지 취급 축소, 주택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등으로 매수자의 구입 자금 조달도 제한되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호가 격차 지속
  - 전국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 119.4('23.9월) → 111.1(10월) → 101.9(11월)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고 현 DSR 예외항목도 축소될 가능성
- 전월 대비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증가하고 수도권 내 수요 기반이 탄탄한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매수자의 관망세 증대
  - 가격변동지역 수(상승/하락, MoM) : 138/37('23.9월) → 135/38(10월) → 104/67(11월)
- 가격 상하방요인이 혼재되며 가격 향방이 뚜렷하지 않아 당분간 관망세가 더욱 커지며 거래 감소,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규제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상승요인이나 매물 적체, 부채 부담은 하방요인

■ 매매 대기수요, 매물 부담, 주담대 금리 등 가격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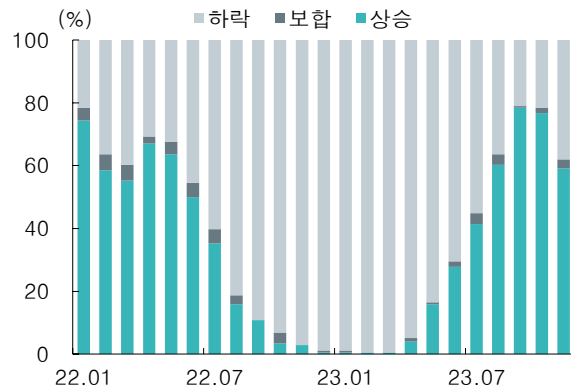
- 시장 관망세 확산 시 매수세는 전세 등 임대료 대기하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전세시장의 동향에 주목
- 청약수요가 위축된 반면 분양물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매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분양물량(천호, 수도권/지방) : 2.6/0.7('23.10월) → 1.2/0.9(11월) → 2.6/1.4(12월)
- 시장금리는 단기적으로 급락했으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며 주담대 금리 또한 코픽스 상승으로 높아질 수 있어 주시할 필요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매매가격 변동지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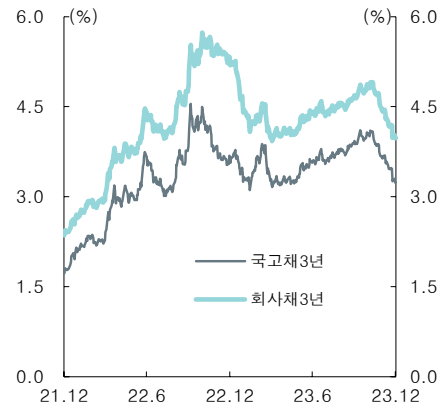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부동산원(전월 대비 가격 변동)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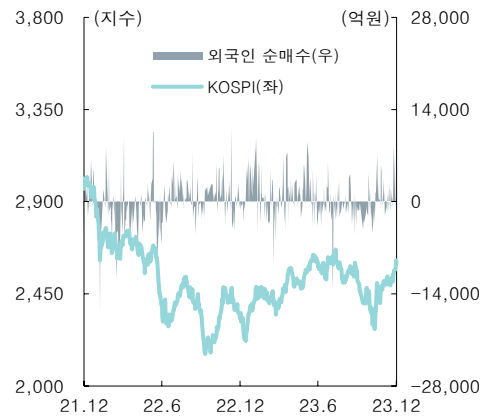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11월말	3.67	3.84	3.95	4.32	3.58	3.62
12월 15일	3.65	3.83	3.72	4.01	3.28	3.31
12월 18일	3.69	3.83	3.71	4.01	3.28	3.30
12월 19일	3.72	3.83	3.71	4.02	3.30	3.31
12월 20일	3.69	3.83	3.69	3.98	3.23	3.25
12월 21일	3.63	3.83	3.70	3.98	3.24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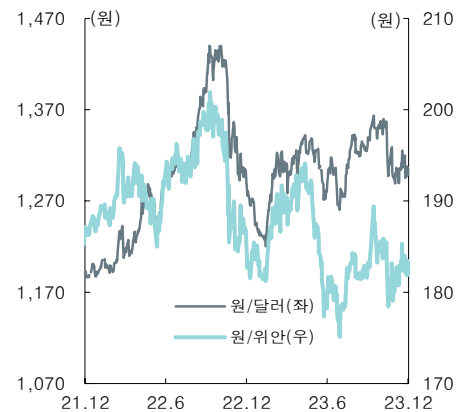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11월말	2,535.3	119,925	664	1,253
12월 15일	2,563.6	128,733	465	8,565
12월 18일	2,566.9	101,816	385	594
12월 19일	2,568.6	84,181	392	-921
12월 20일	2,614.3	112,025	570	4,804
12월 21일	2,600.0	94,678	578	131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11월말	1,290.0	870.1	180.9	1,404.0
12월 15일	1,296.5	911.4	182.1	1,412.4
12월 18일	1,297.2	907.6	181.8	1,416.4
12월 19일	1,307.8	908.9	183.4	1,435.7
12월 20일	1,298.9	903.6	182.0	1,419.9
12월 21일	1,305.1	917.6	182.8	1,4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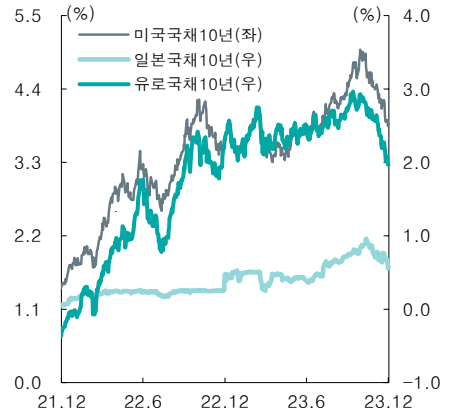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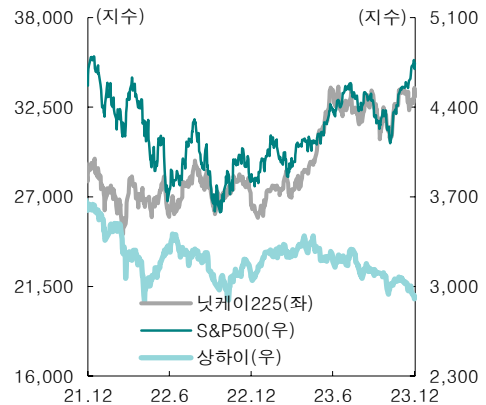
###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11월말	5.33	5.37	4.68	4.33	0.67	2.45
12월 15일	5.33	5.36	4.44	3.91	0.70	2.02
12월 18일	5.33	5.37	4.45	3.93	0.68	2.08
12월 19일	5.33	5.37	4.44	3.93	0.63	2.02
12월 20일	5.33	5.37	4.33	3.85	0.56	1.97
12월 21일	-	5.36	4.35	3.89	0.58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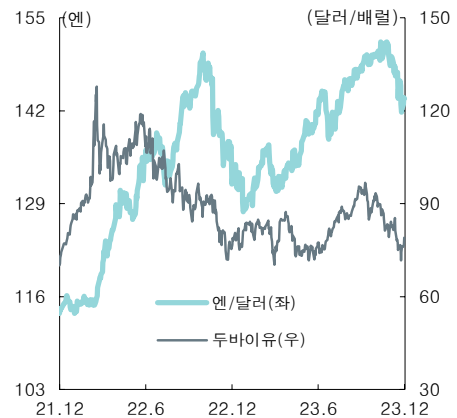
###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11월말	4,567.8	33,486.9	3,029.7	4,382.5
12월 15일	4,719.2	32,970.6	2,942.6	4,549.4
12월 18일	4,740.6	32,759.0	2,930.8	4,521.1
12월 19일	4,768.4	33,219.4	2,932.4	4,535.4
12월 20일	4,698.4	33,675.9	2,902.1	4,533.8
12월 21일	4,746.8	33,140.5	2,918.7	4,524.9



###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11월말	148.25	1.088	85.4	2,057.2
12월 15일	142.24	1.089	76.2	2,035.7
12월 18일	142.91	1.092	76.2	2,040.5
12월 19일	143.88	1.098	76.8	2,052.1
12월 20일	143.74	1.093	79.1	2,047.7
12월 21일	142.23	1.100	78.8	2,051.3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25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12월 22일 인쇄

2023년 12월 26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영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25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